

안전으로 탕정의 신 중심을 만들다

삼성건설,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 2차 현장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lsu002@safety.or.kr)

천안과 안산의 중간지점인 탕정, 조용한 전원도시였던 이곳이 최근 첨단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의 탕정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주변의 배후주거단지가 차례차례 조성되며, 인구 18만명의 새로운 신도시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건설이 짓고 있는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 2차 현장'이 있다. 이곳은 인근에 천안아산KTX역과 충남의고, 탕정중학교 등을 두고 있어, 교통과 교육 등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게다가 현장 바로 옆에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1차 현장도 있어 선호 주거지의 대명사인 '삼성타운'의 등장을 기대케 한다.

좋은 입지와 주변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 이곳 현장은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공까지 무재해를 기록해, 향후 입주민들에게 '안전'이라는 선물을 안기겠다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주간 테마 점검 사항





自, 基, 中, 心 으로 만든 안전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 2차 현장'은 지하2층~지상37층 4개동 858세대의 삼성전자 직원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약 17%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층에 이어 지상층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평균출력인원은 약 250명에 달한다.

이곳 현장의 안전활동은 자기중심(自基中心)이라는 4가지 안전방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자(自)'는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안전은 현장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방침에 따라 이곳 현장에선 협력사, 근로자 각 계층별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자율안전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基)'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을 만들자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곳은 일일시공사이클활동 등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기본을 충실히 실천하여 반복되는 재래형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重)'은 중점위험작업을 철저히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곳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선별하고 철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점위험작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끝으로 '심(心)'은 마음이 따뜻한 현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곳은 3S(SMILE, SELF, SERVICE)운동, 무재해 풍선날리기, 어묵국 파티 등 다양한 감성안전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위험별 맞춤 전략 돋보여

일반적으로 주상복합현장은 층고가 높고 차별화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 추락, 낙하, 화재 등의 위험이 크다.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계획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곳 역시 이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첫째 페리폼의 사용을 통한 추락 및 낙하 재해예방이다. 이곳은 레일을 따라 유압으로 자체 인양되는 페리폼(RCS폼)을 사용함으로써 양중사고의 위험성을 줄였다. 또 '창호 선 설치 공법'을 통해 작업간 추락 및 낙하의 위험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기존의 창호설치는 안전간판을 해체하고 작업이 진행되므로 추락 및 낙하의 위험이 컸다.

이밖에 이곳은 37층 초고층인 현장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키 위해 각층에 가설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無(무)를 통해 안전을 창조

다른 현장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도구인데, 이곳에선 볼 수 없는 도구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다리'다. 이규식 현장소장은 사다리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 사다리의 현장 반입을 금지시켰다. 대신 그는 각 공종별 작업높이에 따른 작업구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난간이 있는 1.5M 말비계를 제작·활용하게끔 했다.

또 이곳엔 '철근 가공장'도 없다. 철근 가공장은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손가락 협착사고가 빈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또 소음도 상당히 심해 외부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곳은 이런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고, 철근을 전량 외부에서 가공해 반입하고 있다.

무재해는 노력의 크기만큼 얻어진다

이곳 현장은 아무리 사소한 작업을 해도 사전에 기술학습회를 갖고,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짠다. 또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작업을 시작한 후에도 일일시공싸이클 활동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점검활동을 한다. 깐깐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짜고, 철저히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먹구구식의 현장관리로는 무재해라는 목표를 얻을 수 없다'는 이곳 현장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의 각오에서 비롯됐다.

무재해는 노력의 크기만큼 얻어진다는 이곳 현장의 안전마인드가 널리 퍼져 '건설안전강국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

현장 구성원 모두가 안전관리자돼야

안전은 결코 개인 또는 한 부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소장과 시공팀, 안전팀, 협력사, 근로자 등 현장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안전역할에 충실하고, 또 이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그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배척되어야 할 풍토가 '내가 안전을 왜 해? 안전은 안전팀에서 하는 거지'라는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장 직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회사에서 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본과 원칙대로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규식 소장

현장 팀장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서신 대리
안전은 관리가 아닌 문화다. 우리 현장에 생활 속에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성희 대리
안전이 반대말은 위험이 아니라 매너리즘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무재해에 일조하겠습니다.

다루는 거룩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매순간 고민하고 노력하며 안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현장에 생활 속에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가 아니라 매너리즘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무재해에 일조하겠습니다.

